

운 때문이라고 보고 이 상극의 원한을 풀기 위해 상생의 기운을 강조하게 됩니다. 즉 세상은 다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터라는 가르침을 펼친 것인데, 이는 역사적으로 새만금 일대를 이어온 상생 정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를 창종한 소태산 박중빈(1891~1943)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태어나 9세에 우주의 자연 현상에 깊은 의심을 품고 수도에 들어가 20여 년간 구도 끝에, 1916년 4월 28일 대각을 이루었습니다. 영광에서 태동한 원불교에게 새만금 일대가 중요한 이유는 원불교의 주요한 교리를 초안하고 교강을 발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소태산은 자신이 얻은 큰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 시대를 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법불교를 창도할 목적으로 1919년 부안 변산의 봉래산으로 들어가 봉래정사와 실상사 초당터, 석두암터 등에 머물며 사은, 사요, 삼학, 팔조 등 주요 교리와 <조선불교혁신론> 등의 초안을 완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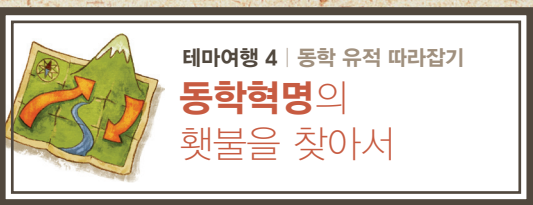
원불교 역시 증산교와 마찬가지로 개혁을 선포합니다. 특히 원불교는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라면서 앞으로의 세상은 과학의 물질문명과 도덕의 정신문명이 만나 조화로운 세상이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즉 새로운 세상은 조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면서 앞으로의 세상은 전쟁의 원한이나 남녀나 신분의 차별이 없으며 모든 종교도 일원상의 진리로 회통하고 통일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증산교의 상생에 조화와 회통의 의미가 더욱 부각된 것이 원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봉래산 원불교 제법 성지

변산 봉래산 제법성지는 소태산이 1919년 10월부터 1924년 5월까지 5년간 기거하며 교법을 반포한 곳입니다. 봉래정사(蓬萊精舍)는 전북 부안군 내변산탐방안내소에서 직소폭포로 오르는 길에 들어서서 5분 남짓 걸으면 만나는 실상사지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소태산이 원불교의 교법을 제정한 곳입니다. 봉래정사는 현재 '일원대도비' 아래쪽에 있는 '실상초당터'와 일원대도비가 서 있는 '석두암터'를 합해 이름붙인 제법성지를 말합니다.

석두암터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실상사 옆 100m 거리, 내변산 직소폭포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태산이 휴양과 제법을 한 처소로 석두암이 있던 곳입니다. 석두암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소태산은 <조선불교 혁신론>과 <수양연구요론> 등을 차례로 초안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석두암 중앙 산비탈에 박혀 있는 자연석 사이에 30cm의 기석을 놓고 그 위에 120cm의 오석을 음각으로 전면에 새긴 '봉래정사 석두암터 비'가 있습니다.



익산 사자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백제시대의 사찰로, 금산사에 딸린 작은 절입니다. 삼국유사 무왕조의 “무왕은 선화비와 함께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를 찾아가던 중”라는 기록에 의하여 사자암이 지명법사를 거주하던 사자사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학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이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포교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산용리 산 127

만석보지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 '만석보'는 1892년 이평 평야지역에 관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됐습니다. 당시 고부 군수 조병갑이 멸절한 저수지 아래쪽에,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부역을 시켜 새 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새 보에 대한 수세라는 명목으로 한 마지기에 상답은 2두, 하답은 1두씩을 받아 쌀 700석 가량을 착취했으며, 이에 분개한 농민들은 1894년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만석보를 부수고 민란을 일으켜 동학혁명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독을 쌓았던 흔적만이 남아 있으며, 1973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2.5m의 만석보유지비가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술리 예동마을

말목장터

말목장터는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봉기한 곳입니다. 고부, 정읍, 태인을 잇는 교통 요충지인 이곳은 조선시대 이래 5일장이 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평면 면사무소 맞은편에 전봉준 장군이 집결한 농민들에게 일장연설을 하고 기대어 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아름다리 감나무는 2003년 여름 태풍 '매미'에 의해 넘어지면서 고사돼 방부 처리한 다음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면사무소 앞

전봉준 고택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의 전봉준장군 고택은 본래 방, 부엌, 건넌방이 붙어 있는 초라한 초가삼간과 초가 흙담으로 둘러진 마당 한쪽에 헛간이 달린 움푹한 옛집이었습니다. 1974년 해체 수리 당시 상량문에 '무인(戊寅) 2월 26일'이



- 1.3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 110주년을 기념해 2004년 5월 개관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모습.
2. 황토현전적지 황토현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 혁명군이 관군과의 첫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곳이다.
4. 전봉준 고택



라는 적혀 있어 세워진 연대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부엌, 큰방, 윗방, 끝 방에 다다 뒤뜰에 널찍한 잔디정원이 생겨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황토현전적지

사적 제295호인 황토현전적지는 당시 태인과 고부를 연결하는 요지로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이 관군과의 첫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싸움터입니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고부 관아를 점령하여 학정을 일삼던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을 몰아냈습니다. 지금 이 고갯마루에는 '갑오동학혁명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2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혁명 11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2004년 5월 33만㎡(10만여 평) 부지에 1만5420㎡(4,673평) 전통 초가형 교육관과 전시관 등을 신축 개관했습니다. 무기류와 관련사적 등 유물을 전시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기념관 맞은편에는 황토현 승리를 기리기 위한 전적지가 있

니다. 대표적인 유물로 흥선 대원군이 동학 농민군에게 보낸 효유문과 동학 2대 교주인 최시형의 친각 인창 5점, 전봉준 장군의 재판 기록인 공초록과 판결문 사본 등이 있습니다. 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을 중심으로 혁명 전개 과정을 시대별 장소별로 재구성해 전시물을 설치했으며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 등 주요 세계사적 혁명 발발 원인과 영향을 설명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소재지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8 문의 063-290-6832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모악산 대원사

금산사의 말사인 대원사는 670년 일승이 심정·대원 등과 함께 창건한 절입니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불에 타 없어진 것을 진묵대사가 중창하였고, 조선 말기 종교사상가로 유명했던 증산 강일순이 이 절에서 도를 깨우쳐 유명해졌습니다. 건물로는 대웅전과 원통보전·응향각·삼성각·봉익루·범종각·구요사·객실 등이 있으며, 대웅전 내부 석가모니불 뒤에 삼신후불탱화와 칠성탱화·신중탱화가 있으며, 탕화 옆에 진묵대사의 진영이 걸려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새만금, 그 상생과 화합, 그리고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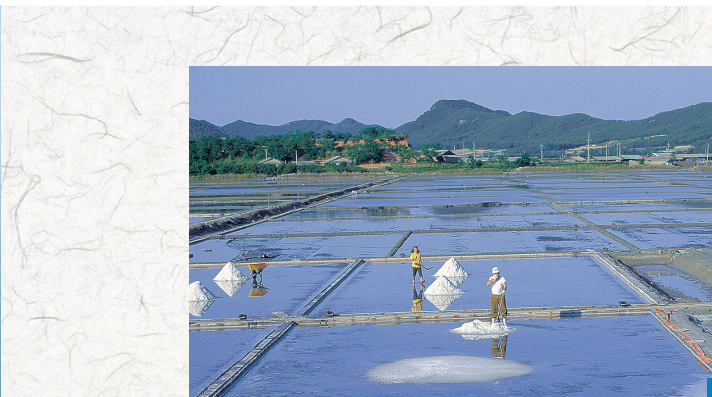
새만금, 상생하고 조화하는 생명의 땅으로

신선의 땅으로 동아시아적 파라다이스의 이상과 판타지가 펼쳐진 곳, 미륵불의 염원으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생명의 미륵사상이 퍼져나간 곳, 조선 후기 경화된 유교 사회의 개혁을 꿈꾼 실학의 모험이 태동한 곳,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햇불이 활활 타오르고 증산과 원불교의 '개벽' 정신이 크게 일어난 곳, 새만금 지역은 한국 정신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생명과 상생 정신의 발신처이자, 끊임없이 새로운 문명을 꿈꾸던 미래의 땅이었습니다.

새만금이 있기 오래 전, 이 지역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사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개벽과 상생의 염원이 펼쳐졌습니다. 오늘날 새만금이 꿈꾸는 '새로운 문명'과 이 지역의 오래된 '개벽'의 염원에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상생과 화합, 그리고 조화와 회통을 통해 생명의 가치가 무엇보다 존중되는 미래를 건설하자는 비전입니다. 과거에 그것은 꿈이었으나,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에서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생명의 가치를 가장 앞서 밝히는 새로운 문명의 도시,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선각자들이 오래도록 꿈꿔온 지상선경·미륵세계·개벽세상의 모습이며, 또한 앞으로 새만금에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문명 건설의 사명을 부여받은 새만금이 그래서 미래의 땅으로 우리 앞에 호출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준비되었던 것처럼.





어민들이 만든 새만금 갯벌지도

새만금 갯벌지도는 지난 2003년 4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이후 갯벌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어민들의 삶의 파편과 증언을 모아 만든 새만금의 생태지도입니다. 지도에는 우선 어민들 사이에서 구전돼온 독특한 갯벌의 이름이 표기돼 있는데, 어민들은 썰물 때 드러나는 갯 등을 ~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중 ‘속풀’은 어민들 사이에서 썰물 때 가장 늦게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군산 하제앞의 ‘오전풀’은 바닷물이 빠진 갯벌을 지역별로 주민들이 붙여서 부른 이름입니다. ‘구복작’ 역시 송어와 조기 등 9가지 어종이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새만금 어민들이 경험에서 우러나 붙여진 이름입니다.



1. 새만금방조제 33.9km로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의 모습
2. 열전 지금까지도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 소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곰소항의 천일염전
3. 곰소항 곰소항 젓갈의 맛갈스러운 맛의 비결은 소금에 있다고 한다

부안, 새만금의 갯벌

부안은 예로부터 광활한 갯벌로 유명한 곳입니다. 1991년부터 시작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물막이 공사로 갯벌이 많이 수척해진 상태이지만 지금도 모항과 곰소항 등 부안의 안쪽으로 들어서면 아직도 바다의 자양분 역할을 하는 갯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평생을 살아온 어민들의 삶이 묻어 있는 갯벌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모항

부안군 격포항 아래의 모항은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정겨운 어촌 마을입니다. 저 멀리까지 뻗어 있는 갯벌과, 무엇에 지쳤는지 비스듬히 누워 쉴쓸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텅 빈 통통배들, 그리고 저 멀리 바다를 가리며 뱃길을 만드는 또 다른 통통배의 모습은, 정말이지 한편의 시구처럼 아름답습니다. 모항은 변산반도 내에서도 청정 해역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한편 방파제 오른쪽 언덕에는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팽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데, 이 고목은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에 등장했던 ‘소원나무’라고 합니다. 모항은 낙조가 아름다우며, 주변에 모항해수욕장과 캠핑장도 있어 조용히 변산반도의 바다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모항에는 약 10만㎡, 즉 3만여 평에 이르는 갯벌이 형성되어 다양한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곰소항과 염전

곰소항은 변산반도의 가장 끝 지점에 해당되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착취한 물자를 보내기 위해 만들었던 군항입니다. 한때 전북에서 군산 다음의 제2의 항구였으나, 지금은 그 위용을 격포에 고스란히 내준 대신 그 어느 곳보다 맛

갈난 젓갈로 유명한 곳입니다. 곰소의 유명한 젓갈 맛의 비결은 실은 소금에 있다고 합니다. 곰소 앞바다에서 내륙으로 맞은편에는 일제 강점기 만들었다고 전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천연덕스럽게 옛날 방식 그대로 소금을 만들어내는 재래식 천일염전이 있습니다.

부안자연생태공원

부안자연생태공원은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우포리 일원의 침수방지를 위해 줄포만 677,662㎡(20만여 평)의 갯벌을 막아 만든 공원으로, 이 일대를 2007년 줄포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줄포 IC에서 5km 지점에 있으며 줄포면 소재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줄포만 갯벌저류지에 만든 생태공원에는 갈대숲 10리길, 야생화단지, 바둑공원, 은행나무 숲길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비롯 50여 종의 바다새와 갈대, 칠면조 등 염생식물, 칠게, 맛조개 등 생물이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갈대 숲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는 최고의 장관을 연출해 부안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재지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계화도 界火島

부안의 북쪽에 위치한 계화도는 원래 면적 2.5km², 해안선길 약 7km의 작은 섬이었으나, 196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장 크게 시도된 동진강 하구의 대규모 간척공사로 육지와 이어졌으며 이 공사로 조성된 경지는 약 46km²에 이릅니다. 문포에서 4km쯤 가면 조포라는 포구가 있던 곳으로 2km가 넘는 금모래 백사장에 갯가지 생선을 말렸으나, 1963년 계화도 간척사업으로 문전옥답으로 바뀌었습니다. 계화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쌀이 되었습니다. 계화도 간척사업은 국토 3,968ha가 늘어나 지도를 바꾸어 놓았으며, 그 외에 청호저수지가 새로 생기고, 도로 67km, 용배수로 317km, 택지조성 65.6ha, 주택 1,000동을 세운 사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전시관과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전시관은 새만금사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역사 이래 최대사업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그려가는 과정이 소개하는 곳입니다. 한편 새만금 지구는 해외 관광객들조차 놀라는 엄청난 면적을 자랑하는데, 우리 국민 1인당 10㎡ 정도씩 나눌 수 있는 면적입니다. 🌊



1 채석강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듯한 해식단애가 장관을 이루는 채석강의 풍경
2,3 내소사 내소사 천왕문을 지나 봉래루 누각 아래를 거쳐 돌계단을 오르면 드러나는, 변산 아래 곱게 날개를 펼친 내소사의 대웅보전의 모습
4 월명암 변산팔경중의 하나로 자욱한 안개로 유명한 월명암

아름다운 비경, 변산반도

변산반도는 조선팔경 가운데 하나로 손꼽혔을 만큼 수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내변산이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건 낙조의 스러지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출렁이는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새만금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 변산반도로 떠나 볼까요?

직소폭포와 변산 팔경

직소폭포는 변산 팔경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변산 팔경이란 직소폭포(直訴瀑布)와 함께 아름다운 서해 앞 바다에 강촌의 어부들이 낚시대 드리운 모습(웅연조대 : 雄淵釣臺), 변산 내소사에 올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소사모종 : 蘇寺暮鐘), 변산 월명암 앞의 자욱한 안개(월명무애 : 月明霧靄), 바다를 물들이는 서해 해넘이(서해낙조 : 西海落照), 억겁 세월이 만들어낸 격포 채석강의 돌기둥(채석범주 : 採石帆柱), 변산면 지서리의 신이 내린 풍경(지포신경 : 止浦神景), 다시 변산 개암사의 오랜 자취(개암고적 : 開岩古跡)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직소폭포의 아름다운 풍경은 변산반도의 제 2경으로, 이곳에서는 '직소폭포의 선경을 보지 않고는 변산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내변산 입구에서부터 20여 분 거리에 있는 직소폭포는, 웅장하고 시원한 모습으로 30여 미터 아래로 물줄기를 떨어뜨립니다. 그 물줄기로 말미암아 절벽이 깎여 오랜 세월 낙하지점이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다는 폭포. 깊이 가늠하기 힘든 깊고 큰 소(沼)와 함께 신선이 반할 정도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소사 가는 길

변산 내소사는 입구에서부터 특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매표소가 위치한 일주문입니다. 내소사 일주문은 진입로를 약간 감춘 방향으로 세워 그 안쪽이 좀체 시선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탁월한 건축적 감각이 이미 일주문에서부터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문 안쪽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크기로 길 양옆에 꼭 늘어서 있는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이 600m 앞까지 펼쳐집니다. 이 웅장하고 싱그러운 전나무 숲길은 해방 직후에 세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1,500년 고찰을 향해 환갑의 전나무 숲길이 만들어낸 조화가 놀랍습니다. 숲길 끝에 자리한 천왕문을 지나 봉래루라 현판 걸린 이층 누각 아래를 거쳐 돌계단 오르면, 마침내 능가산 아래 곱게 날개 펼친 대웅보전을 만납니다. 능가산이란 '그곳에 이르기 어렵다'는 범어에서 나온 이름이며, 본래 이름이 소래사였던 내소사는 '다시 태어나 찾아온다'는 뜻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르기 어려운 그곳으로 다시 태어나 찾아오는 절'쯤 될까요. 아무려나 능가산의 수려한 봉우리를 병풍처럼 펼쳐진 산자락 아래 화려한 듯 보이나 소박함을 잃지 않고 고풍스럽지만 친

숙함을 잃지 않는 대웅보전의 자태는, 눈부시게 빼어나습니다. 아울러 대웅보전의 연꽃과 국화 문양의 꽃 창살 사방연속무늬는 내소사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데, 우리나라 장식 문양 중 최고로 평가되는 꽃 창살은 고유의 나무빛깔과 나뭇결 위에 그대로 수놓아져 있어 절제의 미가 돋보입니다.

채석강과 격포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은 채석강을 끼고 있어 일명 '채석강 해수욕장'으로도 불립니다. 층암절벽인 채석강에 밀물과 썰물이 차올라 오고 빠지는 모습을 백사장에 서서 지켜보노라면 억겁의 세월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듭니다. 채석강은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듯한 해식단애가 장관을 이룹니다. 변산반도에서 서해바다 쪽으로 가장 많이 돌출된 지역으로 강한 파도와 바람의 영향으로 형성된 주변 경관과 해안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썰물 때면 파도가 오랜 세월 동안 만든 채석강의 너른 갯바위를 거닐며 파도가 빛은 자연 동굴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채석강이라는 이름은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태백이 배를 타고 술을 마시면서 강물에 뜬 달그림자를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는,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채석강과 그 생김새가 흡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수성당과 개양 할미

격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리 많이 닿지 않는 명소가 있습니다. 적벽강 용두암 위, 수성당입니다. 수성당은 '개양 할미'라는 서해 바다의 수호신이 사는 곳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개양 할미는 아득한 옛날에 수성당 옆 '여울골'에서 나와 서해 바다를 열었다고 합니다. 개양 할미는 딸만 여덟을 낳아 각 도에 바다 지킴이로 보내고, 자신은 막내딸과 함께 이곳에 머물며 서해 바다를 총괄했다 합니다. 개양 할미는 어찌나 키가 크던지 나막신을 신고 바다를 걸어 다녀도 버선도 찢지 않았으며, 스스로 수심을 재어 어부에게 알려주어 풍랑을 막아 주었다고 합니다. 수성당 들보에 따르면 수성당의 건립 시기는 1804년. 적어도 그때 이후 격포 사람들은 해마다 정월 초사흘날이면 수성당에 제를 올리며 배의 안전과 풍거를 기원한 것입니다.

소재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5-17

적벽강

수성당 바깥으로는 적벽강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중국의 적벽강을 그대로 닮았다는 붉은 색의 암반과 절벽으로 펼쳐지는 약 2km의 해안선입니다. 주변 전체가 각이 없는 둥그스

름한 몽돌로 유명한 적벽강은 격포 최고의 명소 채석강에 비해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 한가하게 해넘이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변산해수욕장

변산해수욕장은 부안에서 격포 방향으로 24km 지점에 있습니다. 길이가 780m 면적은 461,200㎡로 고운 모래와 경사가 완만해 가족나들이에 적합합니다. 1932년 변산반도 해안일주도로가 개설되면서 1933년에 개장된 오랜 역사를 지닌 변산해수욕장은 한때 피서객이 매년 50만 명 이상 찾아들 정도로 전라북도의 대표적 관광지였으며 1964년 전국 관광지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을 만큼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고사포해수욕장과 하섬

변산해수욕장에서 변산면 소재지를 지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해안도로에 진입하면 원광수련원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곳이 고사포해수욕장입니다. 소나무 숲과 백사장이 잘 어울리는 해수욕장으로 하섬이 지척에 보입니다. 섬이 바다에 떠 있는 연꽃같다 하여 연꽃 하(遐)자를 써서 하섬이라 합

니다. 한편으로는 새우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새우 하(鰕)자를 쓰는 하섬이라고도 합니다. 하섬은 음력 초하루와 보름을 전후로 3~4일간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길이 하루에 두 번씩 열립니다.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닷길이 열릴 때에는 걸어서 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닷길 폭이 20m 정도 갈라진 구간에서 해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해산물을 줌의 즐거움은 세상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신비의 바닷길을 만나려면 바닷길 열리는 시간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바닷길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물때 시간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고사포해수욕장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성천포구를 지나면 하섬 바닷길 감상 안내표지와 함께 조망시설이 있으므로 잠시 멈춰서 감상해보기를 권합니다.


영상테마파크

부안 영상테마파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상문화특구로 지정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입니다. 사극 전용 촬영세트장으로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일대 총 부지 44,891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약 15ha(약 4만5천

평) 부지에 궁궐 24동, 민가 11동, 200m 길이의 성곽, 정자와 연못, 저잣거리 등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에서는 이미 <태양인 이제마>, <불멸의 이순신>, <이산> 등이 촬영됐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왕의 남자>도 이곳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

소재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75 **문의** 063-583-0975


관람 시간 오전 8시30분~오후 7시



전복보다 대접을 받은 백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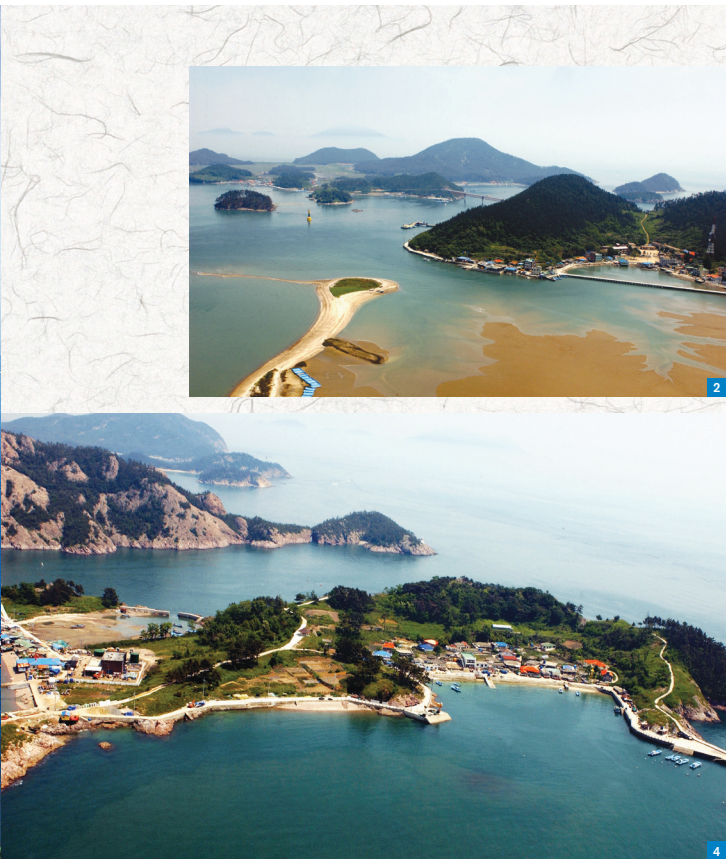
백합은 부안에서 맛볼 수 있는 향토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백합은 변산반도 서북부 연안바다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조개인데 흔히 생합이라 부르며 어른의 주먹만큼 큰 백합을 대합이라 합니다. 백합죽은 4~5년생의 백합 조갯살을 잘게 썰어 넣어 죽을 쑤는데 참기름을 약간 넣고 깨소금과 김으로 고명을 쓰기도 합니다.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우며 철분과 핵산이 많아서 담석증과 간에도 좋습니다. 백합은 4~5월에 살이 가장 오르고, 백합이 머금고 있는 염도나 영양 섭취가 왕성해 타포닌 성분이 있어서 알코올을 분해하고 간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부안군 일대 식당에서는 기존의 백합탕과 백합죽 외에 부안의 특산물인 뽕과 오디를 이용한 새로운 레시피인 참뽕백합죽을 선보여 여름 별미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봄철 제 맛인 주꾸미



격포, 공항, 모항 등지에서 바로 잡아 올린 살아있는 주꾸미를 재료로 하는 주꾸미 요리는 부드럽고 맛이 담백합니다. 옛날부터 '봄 주꾸미',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듯 주꾸미는 3월부터 4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이때가 되면 알이 배고 살이 더욱 쫄깃쫄깃해 맛이 좋습니다. 주꾸미는 맛 좋고, 칼로리가 낮으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웰빙 해산물로 알려지면서 날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불포화지방산과 DHA를 함유하고 있으며, 간장의 해독기능 강화, 혈중 콜레스테롤치 감소 등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꾸미는 그물로 잡기도 하지만 소라와 고둥의 빈껍데기를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잡기도 합니다. 고동, 전복 등의 껍데기를 몇 개씩 줄에 묶어서 바다 밑에 가라앉혀 놓으면 밤에 활동하던 주꾸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부안 곰소항에서는 매년 4월 '곰소 알주꾸미 축제'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 적벽강 채석강 인근의 적벽강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 한가하게 해넘이를 볼 수 있는 장소다
- 수성당 격포 사람들이 해마다 정월 초사흘날이면 제를 올리며 배의 안전과 풍거를 기원하는 수성당
- 변산해수욕장 한때 피서객이 매년 50만 명 이상 찾아들 정도로 전라북도의 대표적 관광지였던 변산해수욕장의 모습



- 1 고군산군도 군산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상에 있는 63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군산군도
- 2 선유도 선유팔경으로 유명한 선유도 전경
- 3 선유도 망주봉 여름에 소나기가 오면 폭포 같은 빗물이 장관인 152m 망주봉
- 4 장자도 뒀는 말 앞의 커다란 먹이 그릇처럼 장자봉이 우뚝 솟아 있는 형국으로 큰 인재가 많이 나오는 풍수를 지닌 장자도
- 5 장자할매바위 떠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장자할매바위



고군산군도, 12동파 이야기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는 군산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상에 있는 63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6개가 유인도입니다. 고려 때부터 군산진이라 불렀으나 조선 세종 때 진영을 육지로 옮기면서 옛날의 군산이란 뜻으로 고군산이라 불립니다. 방조제가 지나가는 신시도의 월영산이나 대각산 정상에서 고군산군도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선유도·무녀도·장자도 등 일부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시도와 연결교가 마저 이어지면 이제 아름다운 섬들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겠지요.

신선이 노니는 섬, 선유도

고군산군도의 중심섬인 선유도(仙遊島)는 본래 군산도라 불렸습니다. 선유도라는 이름은 섬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고 하여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선유도는 예로부터 선유팔경이라 불리는 비경이 있습니다. 팔경은 선유도의 상징인 152m 망주봉에서 여름 한낮 소나기로 흐르는 폭포 같은 빗물(망주폭포 : 望主瀑布), 명사십리는 현 십리길을 이어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의 눈부신 은빛 모래사장(명사십리 : 明沙十里), 망주봉과 진말 사이 모래 언덕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것과 같은 고즈넉한 모습(평사낙안 : 平沙落雁), 선유도와 무녀도 사이의 마치 고기를 가득 잡는 어선처럼 솟아 있는 세 개의 무인도(삼도귀범 : 三島歸帆), 장자도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수백 척의 배들이 밝힌 불빛의 장관(장자어화 : 壯子漁火), 선유도를 둘러싸고 있는 방축도, 말도, 명도의 12봉오리가 파도 위에서 마치 춤을 추듯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장관(무산십이봉 : 巫山十二峰), 가을철 신시도에 있는 월영봉의 아름다운 단풍(월영단풍 : 月影丹楓), 선유도에서 바라본 서해 낙조의 장엄함(선유낙조 : 仙遊落照)이 그것입니다. 한편 선유도 선착장 서쪽 고개 너머 통계마을에서 진말로

가는 길목에는 신석기시대 조개 무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곳 조개 무덤에서는 빗살무늬토기와 김해식 토기조각 그리고 뼈로 만든 낚시 바늘 등이 발견되고 있어 배를 타고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며 생활했을 당시 신석기인들의 삶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큰 인물이 나오는 섬, 장자도

선유도에서 해수욕장을 지나면 장자도와 연결된 큰 인도대교를 볼 수 있습니다. 1986년 12월에 완공된 길이 268m, 폭 3m, 높이 30m의 이 다리는 장자도, 대장도, 선유도, 무녀도 등 4개 섬을 연결하는 연륙도입니다. 30m 높이의 이 다리는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장자도는 원래 가재미와 장재미를 합한 이름입니다. 풍수 지리적 입장에서 보면 뒀는 말 앞의 커다란 먹이 그릇처럼 장자봉이 우뚝 솟아 있는 형국으로 눈앞의 선유도가 그 맥을 감싸 안고 있어 큰 인재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그마한 섬에서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당이 춤추는 섬, 무녀도

무녀도(巫女島)는 신시도와 선유도 중간에 위치한 섬입니다. 흔히 여인네가 없는 섬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없을 무(無)자가 아닌 무녀 무(巫)자를 씁니다. 즉 앞에 있는 장구 모양의 섬과 술잔 모양의 섬과 겹쳐 마치 무당이 굿을 할 때 너울너울 춤을 추는 모습과 같다 하여 무녀도(巫女島)라 부른 것입니다. 무녀도는 염전이 매우 발달된 섬으로 지금도 천일염을 제조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녀도의 주봉은 무녀봉이 있으며 무녀 2구 앞에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똥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녀가 너무나 신명나서 높이 뛰다가 아마 큰 일을 보아버린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고군산군도에는 최근까지 원시적인 매장 문화인 초분이 남아 있었는데, 5년 전 선유도의 마지막 초분이 이장을 한 후 현재는 무녀도에만 오직 한기의 초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무녀도의 초분은 40여 년 전 사망한 남성의 초분인데, 본래 매장을 하였으나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아 다시 초분으로 모시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무녀도 초분 인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모감주나무가 40여 그루 자생하고 있습니다. 모감주나무는 노란색의 꽃이 아름다운 나무로 멋진 잎과 파리처럼 생긴 열매를 보기 위해 온대지방에서도 많이 심고 있다고 합니다.



늘 푸른 섬, 어청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於靑島)는 군산항에서 약 72km, 배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서쪽 끝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 서쪽 영토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새벽에 중국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로 중국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늘 푸른 섬’이라는 뜻의 어청도(於靑島)는 군산항에서 출발하여 연도를 거쳐 도착할 수 있는데 배가 닻을 내리는 항구는 동서로 3km, 남북으로 2km 평균수심 5m의 어청소만입니다. 알파벳의 ‘C’ 자를 연상시키는 섬 모양 때문에 기상이 악화되면 인근 바다의 모든 배들이 이곳으로 대피하곤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백제시대 이미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시대에는 주로 귀향지로 이용되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어청도는 조선시대 청국인들에 의해 신림이 남벌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청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안타깝게도 조선왕조가 쓰러져 가던 19세기 후반 일본인 어부들이 우리 영해에서 수산자원을 약탈하면서 부터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885년경에 일본인 잠수부들이 찾아와 전복, 해삼 등을 채취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1898년에는 인천에 정착한 일본인 어부 20가구가 어청도로 이주하여 터전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후 어청도는 일본인들의 서해어업 전진 기지가 되어 1903년에는 호남 최초로 일본 우편수취소(우체국)가 설치되었고, 일본인 어민들 자녀 교육을 위하여 어청도에 심상보통학교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밤이 아름다운 섬, 야미도

3호 방조제 종점에 위치하고 있는 야미도(夜味島)는 고군산군도 섬 중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섬으로 군산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 뒷산에 밤나무가 많았기에 원래 밤나무가 많아 밤섬이라 불리다가,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때 ‘밤(栗)’을 한자로 표기하



- 1 무녀도 모감주나무 무녀도 초분 인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0여 그루 모감주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 2 어청도 늘 푸른 섬, 어청도는 독특한 지형으로 기상이 악화되면 인근 바다의 모든 배들이 대피하는 섬이었다
- 3 야미도 최근 새로운 일출과 일몰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아름다운 섬, 야미도
- 4 개화도 초분 통풍이 잘되는 곳에 한 평 정도의 바닥에 반듯한 돌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놓힌 후 뱃짐으로 이영을 엮어 마치 초가지붕 모양으로 만듭니다

여 ‘야(夜)’로 하고 밤이 맛있다 하여 미(味)자를 붙여 야미도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멸치 어업을 주업으로 삼았던 마을 주민들이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밤에 삶은 멸치를 먹었다고 해서 야미도(夜味島)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일출과 일몰 명소로 각광받고 있어 밤 야(夜)에 맛 미(味)자가 아닌, 아름다울 미(美)자를 넣어 밤이 아름다운 섬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먹이 찾아 7km, 비안도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 중에서 최남단에 위치하는 섬입니다. 면적 1.63km²에 해안선의 길이 6.6km입니다.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기러기를 닮았다고 해서 비안도(飛雁島)라 불리는데 인근 가력도를 향해 먹이를 먹으러 날아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방조제 공사 때 가력도의 산을 없애려 했으나 비안도 주민들이 섬의 모양을 이유로 그러면 비안도에 먹을 것이 없어진다고 주장해 결국 공사가 중단된 독특한 사연이 담긴 곳입니다. 섬에는 높이 191m의 노비봉이 있고, 이 봉우리를 덮고 있는 동백나무와 괴목나무 숲이 장관을 이룹니다.



힘에 더해지는 섬, 가력도

가력도(加力島)는 ‘힘이 더해지는 섬’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을 위해 조성된 방조제의 갑문이 신시도와 가력도에 설치되어 실제로도 가장 물살이 센 지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갑문에서 바닷물이 들고 나갈 때 초당 15km의 유속을 나타내고 있으니 그 위력을 짐작할 만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이름입니다.



소, 돼지, 닭이 없는 섬

옛날 선유도에는 농업보다는 어업과 천일염생산이 흥했고, 특히 조기와 병어가 많이 잡혔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선유도에는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소, 돼지, 닭, 염소, 오리 등과 같은 가축이 그것입니다. 가축 키우기가 귀찮아 모든 육류를 군산에서 사다가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섬에 비슷비슷한 개가 많다는 것입니다. 섬이라는 이동의 제약성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전합니다.

원시적인 매장문화, 초분

고군산군도는 최근까지도 풍장의 풍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풍장(風葬)은 죽은 자를 바로 매장하지 않고 옷을 입힌 채 또는 관에 넣어 공기 중에 놓아두는 장례법입니다. 폭장(曝葬) 또는 공장(空葬)이라고도 하는데, 고군



산군도에서는 초분(草墳)이라고 불렸습니다. 초분은 죽은 자를 나뭇가지나 풀을 덮어 숲 속에 놓아두거나, 관에 넣어 관을 풀이나 널빤지로 장식을 만들어 덮는 장례법을 말합니다. 초분 장례를 치르고 나면 3~5년 내에 육탈이 되어 뼈만 남으면 뼈를 잘 수거하여 매장을 합니다. 아울러 적절한 매장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오랜 동안 관리하고, 매년 새로운 풀이나 짚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초분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 한 평 정도의 바닥에 반듯한 돌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놓힌 후 뱃짐으로 이영을 엮어 마치 초가지붕 모양으로 만듭니다. 바다이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 날아가지 않도록 새끼줄로 엮어 큰 돌에 메어놓고 그 위에 소나무가지를 꽂아둡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무녀봉 2부 능선에 위치한 초분은 2년에 한 번씩 이영을 바꾸어주기 때문에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부안 개화도에도 현재 초분 1기가 남아 있습니다.



근대 문화가 살아 있는 군산 원도심

군산은 일제 강점기 쌀을 수탈해 가던 항구로, 근대 초기의 건축물과 수십 년 전 시간이 멈춘 듯한 이색적인 풍광으로 최근에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장 출신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무대로 유명하며, 시인 고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한편 군산 원도심은 최근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특색 있는 도심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1923년 건립된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 시설로 군산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채만식의 소설 <탁류>에 등장하기도 한 이 건물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인질로 잡혀왔던 독일인들에 의해 설계되었고 중국인이 시공한 보기 드문 웅장한 건물입니다. 군산근대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군산시 장미동 23-1, 12번지

구 히로쓰 가옥

신흥동 일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유지들이 거주하던 부유층 거주 지역입니다. 히로쓰 가옥은 포목점을 운영하던 히로쓰 게이샤브로가 지은 주택으로 현재는 (구)호남제분 의 용구 사장 명의로 되어 있으며, 영화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타짜> 등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이 주택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근대 일본 무가의 고급 주택인 야기 형식의 대규모 목조 주택으로, 건물 사이에는 일본식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소재지 군산시 신흥동 58-2

구 군산세관 본관

1908년에 만들어진 구 군산세관 본관은 전하는 말에 따르면 프랑스 혹은 독일 사람이 설계하고 벨기에에서 붉은 벽돌과 건축자재를 수입해 건축했다고 합니다. 많은 부속 건물이 있었으나 본관 건물만이 남아 있으며,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의 하나로 현재는 호남관세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지붕은 고딕 양식이고 창문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며 현관의 처마를 꼬집어 낸 것은 영국의 건축 양식으로 전체적으로 유럽의 건축 양식을 융합한 근세 일본 건축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재지 군산시 장미동 49-38

해망굴



해망굴은 일제 강점기 군산항의 제3차 축항공사 기간이던 1926년 10월16일 개통된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일본 명 치천황의 이름을 따 명치통(중양로1가)이라 불렀던 구 시청 앞 도로를 수산업의 중심지인 해망동과 연결하고자 길이 131m, 높이 4.5m의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국조신인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天神)를 모시는 신사가 있어 아침마다 신사참배의 고통스런 울림이 끊이지 않았습니

소재지 전북 군산시 해망동

월명공원

천릿길을 달려온 금강 줄기가 서해 바다와 만나는 모퉁이에 자리한 월명공원은 군산시 전체 면적의 약 0.7%인 77만8천 6백 평의 넓은 규모로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으로는 해망동에서 남쪽으로는 미룡동에 이르는 공원은 군산 시민들에게 있어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서쪽으로 고 군산군도의 섬들이 보이고 멀리 물살을 가르며 오가는 배들의 뱃고동 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애타게 합니다. 월명공원은 그 스스로의 빼어난 모습과 함께 이처럼 아름다운 주변 경치가 함께 어우러져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군산시 신흥동

흥천사

서초등학교 입구에 위치한 흥천사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창건한 안국사(安國寺) 즉, 일본을 편안하게 하는 사찰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일련종 계통의 사찰이었던 안국사는 일본 양식의 대웅전, 요사채 등을 갖춘 건물이 현재 대웅전이 서 있는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

소재지 전북 군산시 금동 2-17

비응관광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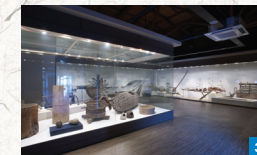
새만금 제4호방조제 종점 부지인 비응도에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와 (주)피서리나가 민간유치 투자 사업으로 비응항을 건설했습니다. 이 어항은 새만금 사업과 연계된 다기능 관광 복합어항으로, 군산내항의 항만기능을 분담하고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합니다. 대형 수산물 시장과 회 센터 등이 들어서 있으며, 낚시 관광 및 고군산군도 크루즈의 거점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해양종합센터, 관광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식음시설, 수산지원시설 및 공장용지,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새만금 방조제의 초입에서 관광객 유치 기능을 담당합니다. 🌊

1 흥천사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창건해 일본 양식의 대웅전, 요사채 등을 갖춘 건물이 현재 대웅전이 있는 흥천사
2 해망굴 일제 강점기 군산항의 제3차 축항공사 기간이던 1926년 10월16일 개통된 터널



꽃게찜과 꽃게장

군산시 연안에서 잡히는 꽃게는 풍성한 살집과 차지고 쫄면거리는 게맛살이 일품입니다. 특히 가을에 잡히는 꽃게는 다른 바다의 것들과 격이 다르다는 평을 받습니다. 수심이 얕고 넓은 군산 앞바다에는 먹잇감이 풍부해 꽃게들이 한겨울 서해 먼 바다로 나가기 전에 살집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가을에는 살집이 도톰하게 오른 수계가 암게보다 상품 가치가 높는데, 수계는 게맛살이 암게보다 많아 꽃게찜으로 좋고, 꽃게탕을 끓여도 맛이 칼칼하고 시원합니다. 반면 알집과 내장이 가득한 암게로 담근 간장게장과 고추게장은 삼삼한 맛을 내 '밥도둑' 소릴 듣습니다.



- 1.2 벽골제 벽골제는 330년 지어진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저수 시설로 지금은 원형이 훼손되어 저수지의 모습 대신 하천만 남아 흐르고 있다
- 3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고대 최대의 수리 시설인 벽골제의 역사적 의의와 발굴 경과, 그리고 수리와 치수의 역사 등 농경문화를 소개하는 장소다
- 4 아리랑문학관 김제 내촌·외리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을 기념하는 문학관
- 5 귀신사 의상대사가 문무왕 16년(676년)에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천년 고찰 귀신사



대한민국 최고의 지평선, 김제

김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들판은 예로부터 쌀을 비롯한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인심이 남달라 맛과 풍유를 아는 전통 문화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 그리고 아름다운 고장 김제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벽골제

벽골제는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저수지로 <삼국사기>에 신라 흘해왕 21년인 330년 벽골제를 축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330년은 이 지역이 백제 영토로 추정되므로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오기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 2년인 1420년에 심한 폭우로 유실되었다고 전합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25년 동진농지개량조합에서 이 제방을 관개용 수로로 개조함으로써 그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지금은 저수지의 모습 대신 하천만 남아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 내에는 제2수문 장생거가 있으며 제방을 따라 남으로 약 2km 내려가면 제4수문 경장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벽골제는 당시에 이미 이러한 저수지 축조가 가능할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토목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사에 획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원래 벽골제는 약 3km에 걸쳐 수여거, 장생거, 중심거, 경장거, 유통거 총 5개의 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벽골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경사회에서 치수의 기능을 헤아려야 하는데, 치수는 식량 생산에 절대적 요소로 생존의 문제이자 국가존속의 문제였습니다. 대규모 수리 시설은 국

가 기간시설이었으며, 왕의 권능은 치수자로서의 기능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벽골제는 제방을 쌓는 데만 연인원 32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사회 규모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벽골제의 축조·유지·수축공사가 얼마나 거대한 국가단위 사업이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소재지 전북 김제시 부량면 신율리 119-1 문의 063-540-3256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고대 최대의 수리 시설인 벽골제의 역사적 의의와 발굴 경과, 그리고 수리와 치수의 역사 등 농경문화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제1전시실은 한반도 농경의 기원을 소개하며, 제2전시실은 벼농사에 이용된 수리 시설을 소개합니다. 또한 백골제의 다양한 면모와 발굴 조사 현황을 소개하는 제3전시실과, 한반도 최대의 곡창인 김제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제4전시실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기계화·산업화되어 가는 농경문화의 현대화 속에 사라져 가는 전통 농기구를 비롯한 삶의 흔적들을 기록하는 중요한 교육 장소입니다.

소재지 전북 김제시 부량면 신율리 119-1 문의 063-540-3031

단야각

벽골제에 위치한 단야각은 아름다운 전설이 흐르는 곳입니다. 신라 제38대 원성왕 때 김제 태수는 토목 기술자인 원덕랑과 자신의 딸 단야를 맺어주기 위해 원덕랑의 약혼녀를 용의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먼저 안 단야는 아버지의 살인을 막고 원덕랑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용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야의 효심과 희생정신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단야각과 단야루를 세웠으며 영정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금산교회** 1908년 건립된 유서 깊은 금산교회는, 당시 남자는 남쪽, 여자는 동쪽에서 예배를 보는 등 남녀유별을 과제를 건축 양식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2. **심포항** 김제평야의 지평선 끝 작은 어촌마을인 심포항의 풍경이 고요하다

아리랑문학관

아리랑 문학관은 조정래의 대하장편소설 <아리랑>을 주제로 아리랑의 주인공인 김제 내촌 · 외리 사람들이 생존, 독립운동, 강제 인력수탈, 야합 등의 선택과 대응을 통해 하와이, 만주, 연해주, 아시아 및 중앙아시아로 이어간 고난의 대장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의 작가 조정래의 작가 연보와 작품 연보, 사진으로 보는 작가의 인생 및 취재 시 일용품, 창작의 과정을 좇아 빼곡히 정리된 취재 수첩과 자료노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3 **문의** 063-540-3934

귀신사

귀신사는 금산사에서 모악산 서쪽 고개를 통하여 전주로 넘어가는 길옆에 있는 청도 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은 현재 대한 불교 조계종에 속해 있는데 처음 세워질 때에는 화엄종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절은 의상대사가 문무왕 16년(676년)에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절은 양귀자의 현대문학상 수상작 <곰 이야기>의 배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소재지 전북 김제군 금산면 청도리 **문의** 063-548-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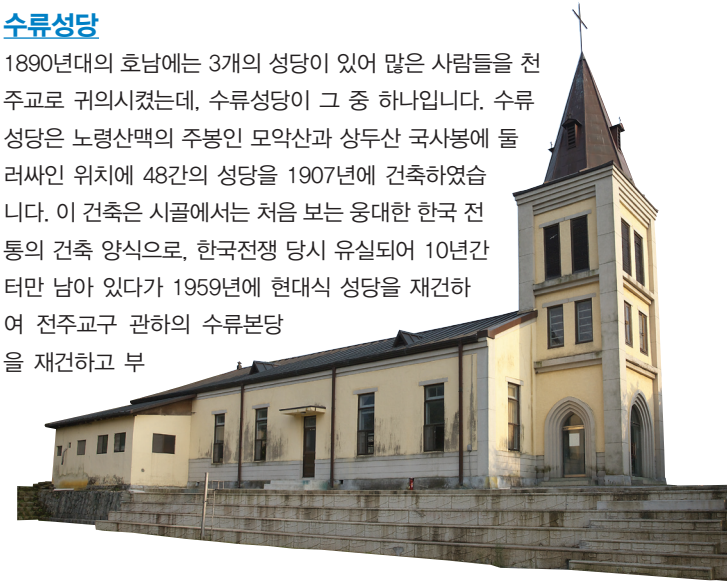
금산교회

금산교회는 1908년 4월에 건립된 ㄱ자형 교회 건물로 내부 구조는 잘 보존되었으나 건물 외부는 기와와 벽체가 변형된 듯하며 현재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내부는 초대 교회의 ㄱ자 모양으로 남쪽에는 남자 석, 동쪽에는 여자 석으로 나누어져 예배를 보았습니다. 남녀유별이란 과제를 ㄱ자형의 교회 평면을 차용해 건축 해법으로 해결했던 것입니다.

소재지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290-1 **문의** 063-548-4055

수류성당

1890년대의 호남에는 3개의 성당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천주교로 귀의시켰는데, 수류성당이 그 중 하나입니다. 수류성당은 노령산맥의 주봉인 모악산과 상두산 국사봉에 둘러싸인 위치에 48간의 성당을 1907년에 건축하였습니다. 이 건축은 시골에서는 처음 보는 웅대한 한국 전통의 건축 양식으로, 한국전쟁 당시 유실되어 10년간 터만 남아 있다가 1959년에 현대식 성당을 재건하여 전주교구 관하의 수류본당을 재건하고 부



흥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류성당은 영화 <보리울의 여름>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김제시 금산면 화율리 223 **문의** 063-544-5652

심포항

김제평야의 지평선 끝에는 신기하게도 작은 어촌 마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심포항으로 현재 이곳은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바다가 아닌 호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둑 너머로 넘실대는 물결과 고깃배들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싱싱한 수산물들을 잡으러 떠날 태세입니다.

거전

심포항 해안길을 따라 봉화산을 돌면 거전(巨田)이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이 지역은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농지가 들어서는 땅입니다. 과연 누가 미래를 예견하고 이곳을 거전이라 이름 지었을까요? 방조제 막기 전에는 바다 일을 했다는 거전마을 사람들은 옛날 거전 앞 바다로 나가면 고기 반, 물 반이었는데, 넓은 갯벌이 '큰 밭'인 셈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넓은 갯벌이 농경지로 변해 마을 이름과 맞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최고, 김제 지평선 쌀

김제를 두고 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곡창지대였던 금안평야에서 생산되는 김제 쌀은 김제 쌀은 품질이 우수하고 밥맛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김제 지평선 쌀은 윤기가 찰지고 식감이 좋은 김

제 쌀은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인 GAP를 받은 친환경 쌀일 뿐 아니라 전국 쌀 품평회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평선 총채보리 한우



전북한우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지평선 총채보리 한우는 무농약, 저비료,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청정 총채보리 배합 사료를 먹고 자라 육질이 부드럽고 마블링이 뛰어난, 최고의 맛과 향을 고루 갖춘 최상급의 한우 고기입니다. 총채보리는 보리알이 여물기 전인 황숙기에 줄기와 함께 베어 발효시킨 유기농 사료로, 보리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총채보리는 소가 매우 좋아하는 청정 사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총채보리 한우는 육질이 뛰어나 1등급 판정률이 80%로 일반사료 한우보다 50% 정도 높고, 사료비는 10%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무농약 안전사료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미래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곳, 새만금

상생과 조화, 그리고 개혁의 정신이 숨 쉬는 땅 새만금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의 문명이 시작됩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관광 레저, 국제 업무, 환경, 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친환경적 복합 도시가 탄생합니다.

세계 최장 33.9km의 방조제와 401km²의 광활한 간척지 위에 세워질 새로운 글로벌 시티. 바로 새만금의 미래입니다.



The Palm

Walt Disney World

Hong Kong Airport

Virgin Galactic Space Tourism Port



관광과 휴양 중심의 방조제 · 다기능부지

새만금은 방조제 중심으로 관광 기능을 부여해 생태와 휴양, 위락 공간이 결합된 시설을 조성합니다. 랜드마크, 휴양 · 숙박시설, 체험공원, 해양수변활동 · 위락시설을 갖춘 메가 리조트가 완성됩니다.



새만금 관광단지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복합 도시

자동차 · 일반 기계 산업이 들어설 첨단산업 권역, 식품 · 에너지 사업 중심의 녹색산업 권역, 환경 관련 융 · 복합 산업과 연구 시설이 세워질 미래융합기술산업 권역, 국제 업무와 R&D의 국제업무 권역, 그리고 복합레저휴양과 관광 중심의 레저 · 생태 권역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명품 도시가 새만금에 만들어집니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동북아 물류산업의 전진 기지, 산업용지

자동차 부품, 조선, 신소재, 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고부가가치 식품관련 산업 등 동북아 물류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미래형 신산업의 메카가 탄생합니다.



새만금 첨단 산업단지

미래를 이끄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용지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새만금 일대에는 신재생에너지 R&D 센터와 산업 집적화 기지, 실증/시험단지가 조성되며, 아울러 바이오원료 확보를 위한 원료작물의 시범재배 · 연구 · 생산 및 소비단지가 조성되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모색과 활용이 실현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단지

생명 가치를 중시하는 생태환경용지

생태를 보존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것은 새만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새만금은 북부 권역에 야생조류 서식 구역과 수질 정화 및 생태습지공원을, 복합도시 권역에 새만금환경 · 연구센터와 수변 녹지 공간, 생태 및 체험관광 공원을 갖추고, 농업용지 인접권역에 홍수 저류 기능 및 수질 정화 시스템을 갖춘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곡창지대, 농업용지

새만금이 더욱 비옥한 곡창지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복합곡물단지와 유기농업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를 통해 친환경 · 고품질 농산업을 추구합니다. 원예단지와 대규모 농어업회사,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농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테마파크와 농촌마을, 모둑장과 수목원 조성을 통해 녹색성장과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상생과 화합, 조화와 개혁의 땅

새만금에서 빛나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상생과 화합, 조화와 개혁.

새만금의 과거는 새만금의 미래입니다.

새만금 지역은 오랜 역사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문명의 태동을 준비한 땅입니다.

너르디너른 신천지에서 상생하고 화합하며,

모든 생명이 조화하기를 꿈꿔온 땅입니다.

이제 예로부터 새만금에 깃들었던

상생과 화합, 조화와 개혁의 그 장한 정신과

상서로운 기운을 이어받아 산업, 관광 레저, 국제 업무,

환경,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 복합도시를

건설합니다.

세계 최장 33.9km의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광활한 간척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만들어낼

새로운 미래의 도시.

새만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새만금, 그 비전과 목표

새만금의 비전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미래 · 기회 · 약속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은 'Creating Tomorrow'를 슬로건으로 삼아 가장 매력적인 동북아 경제 · 문화 · 관광 중심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이 지향하는 도시조성의 기본 목표는 'Global', 'Green', 'Water', 'Human', 'Culture'의 5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새만금을 세계의 인력과 자본, 기술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Global'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거점으로서의 'Green'도시를 조성하여 자연생태계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신세계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청정한 바닷물과 강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름답고 여유 있는 친수 'Water'도시로 조성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람들 누구나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인간 존중의 'Human'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섯째,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사상, 예술이 조화롭게 교류하는 미래형 'Culture'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기회 · 약속의 터 새만금의 새로운 내일이 펼쳐집니다.

미래를 여는땅, 새만금 이야기를 마치며

최근 새만금은 국내외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의 첫단추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방조제가 준공된지 5개월만에 국내외 500만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는 33.9km로서 세계최장의 길이를 인정받아 네덜란드의 줘다쥬 방조제(32.5km)를 제치고 세계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인류의 대작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기로 유명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도 새만금특집이 제작·방영되어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의 실체는 이제 겨우 그 모습의 일부만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만금의 미래는 그간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새롭고 놀라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이 지향하는 비전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입니다. 새만금은 생태와 인간이 상생하고, 세계의 모든 사상과 문물이 조화되며, 인류 모두가 화합하여 밝은 미래의 새세상을 열어가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만금의 포부는 우리의 단순한 기대와 희망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 ’10년대말 세계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G20 의장국으로서 당당히 세계의 리더국가반열에 오른 우리나라가 미래 성장동력의 터전으로 준비해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E. H. Karr에 의하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새만금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 볼 때 이러한 우리의 기대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초하지 않는 현재도 없고, 현재에 기초하지 않는 미래도 없습니다.

본 책자에서는 새만금지역의 역사와 사상, 문화, 그리고 지리적 특성 등을 현재의 시점에서 반추해 봄으로써 새만금개발사업의 당위성과 역사적 필연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의 관광자원들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만금지역의 역사와 사상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잘 규명해 주신 군산대학교 김성환교수님과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실감나게 소개해 주신 동학혁명기념관 박대길학예사님, 부안문화원의 김경성사무국장님, 그리고 현장 구석구석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관계자 여러분들의 희생적 노력이 본 책자 탄생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 책자 완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주)앤아이씨컴즈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 외에도 현장 탐방과 자료 취득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들 드립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고군산열도를 돌아볼 때 겪던 배 멀미와 내변산 의상봉 부사의방을 찾았을 때 느꼈던 아찔한 현기증, 그리고 김제 만경면사무소 회의에 참석하셔서 관심을 보여주시던 86세 시골할아버지의 간절한 모습 등의 추억을 뒤로 하며…….

2010.10.15

국무총리실 새만금기획단 스토리텔링제작팀

참고 문헌

〈개벽과 상생의 문화지대 새만금문화권〉 김성환 외 공저 / 정보와 사람
〈새만금의 이해〉 2009 새만금 해설사 양성과정 교재 / 전라북도
〈새만금 주변 스토리자원 모음집〉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군산도서지〉 군산시
〈지평선 김제 황금 물결 거닐다〉 김제시
〈부안여행이야기〉 부안군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국무총리실 외 관련부처

감수

김성환 | 군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경성 | 부안문화원 사무국장
박대길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사

발행일 2010.10.15

발행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tel 02,3210,2656

fax 02,3210,2685

web www.smgc.go.kr